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	봉헌 (340)	성체 (153)	파견 (437)
---------	--------	----------	----------	----------

###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도 유혹에 휘둘린 신자들이 예수님 때 와 비슷한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납니다.  
 -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믿기에 허술하다, 누가 믿어 줄 수 있겠는가.  
 -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 교회의 처사가 보기가 너무 역겹다, 누가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 십계명이 지키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누가 다 지킬 수 있겠는가.  
 행여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투덜거렸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 이윽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참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의 복음묵상 중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5	이 요한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12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19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26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75	\$	\$26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9/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9/1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8/25	황 가롤로/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9/1	손 아놀드/ 손 쟈마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활동적인 내가, 침묵피정?

-김원경 마리아 | 사이클 선수-

4개월 사이에 9개국을 돌아다니며 시합을 했습니다. 시차 적응과 음식 적응을 다 했다 싶으면 이내 다른 나라로 옮겨 시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곧 건진 대모님이 될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피정 좋으니까 한번 가봐요, 내가 가고 싶었던 건데 여건이 안되니 먼저 다녀와서 나한테 좀 알려줘요!”라며 피정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이 피정의 주제는 <산책, 침묵, 면담, 미사>가 전부였습니다. 여태껏 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이도 움직여 왔던 저는 멈춰야 할 때 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시기도 시합이 끝난 후, 휴가 일정과 딱 맞았기에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피정하는 날,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용히 1인 1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2박 3일 침묵피정은 이나시오 성인으로부터 유래해왔다고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첫날부터 대침묵을 시작하며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피정을 참가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싶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밥도 먹고 싶고, 오늘 느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구 소리치는 내면의 목소리에 지쳐 둘째 날엔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버렸습니다. 저녁 8시에요... 그렇게 평소에 못해왔던 12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9 월 6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9 월 9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천교실 에서 모임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전 요아킴 신부님의 생신 축하 만찬** 8 월 19 일(일) 저녁 6 시 오늘 저녁 6 시에 신부님 생신 축하 겸 봉사자 저녁만찬이 히스패닉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막아져 내면의 목소리가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어제 까지만 해도, 개울가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 흙탕물이 휘감기듯이 제 마음이 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잠잠히 채우고 나니 그 흙들이 가라앉아 정말 맑은 정신과 몸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쉼, 제대로 된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가라 앉히고 나니 내 마음이,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기도 했습니다. 더 맑고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만 뻗으면 핸드폰이 있고 그 안에는 광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제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침묵피정을 기억하며 저는 하루에 딱 오분이라도 멈추려고 합니다. 멈춰야 진짜가 보입니다. 내 마음과 하느님의 사랑이 닿는 느낌은 참 훌륭했습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한국 교회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연도’라는 독특한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의 빈소에 가면 문은 신자들이 시편에 우리 가락을 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단성 가락을 붙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통을 전례에 받아들여 만든 한국 천주교만의 독특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령기도 자체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는 시편을 토대로 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기도를 들여와 우리 운율과 가락에 맞춰 기도하던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